

‘김도영 살리기’… 배팅볼 투수로 나선 최고참 최형우

박찬호 대신 1번타자·유격수
부담감에 공·수 부진 팀 4연패
김도영 “큰 도움…이겨내겠다”



KIA 타이거즈가 뜨거운 포스트 시즌을 위해 ‘김도영 살리기’에 나섰다.

1위 LG 트윈스를 상대로 3연승 질주를 했던 KIA의 순위 싸움에 제동이 걸렸다.

공교롭게도 톱타자이자 유격수로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박찬호의 이탈과 맞물려 KIA는 힘든 주를 보냈다.

박찬호는 지난 12일 삼성전에서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다가 왼손 4번째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다. 타격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수비와 대주자로 역할을 가능한 만큼 엔트리에 그대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찬호가 타석에서 물러나면서 김도영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졌다.

김도영은 박찬호가 빠진 뒤 17일 두산전까지 3경기에서 톱타자로 나섰다.

12일 삼성전에서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감이 좋았던 만큼 김도영은 “자리 신경 쓰지 않고 하던 대로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지만 결과는 12타수 무안타. 볼넷으로 단 한 차례 출루하는 데 그치면서 스피드도 보여주지 못했다.

박찬호가 빠지면서 김도영의 수비 자리에도 변화가 있었다. 김도영이 유격수로 이동했고, 13-15일 경기에서는 최정용이 3루수를 맡았다. 17일에는 변우혁이 3루에 섰지만 공교롭게도 3루에서 언달이 실책이 나왔다. 김도영도 실책을 하나 기록했다.

마음과 다른 타격에 내야에서 가장 바쁜 유격수 자리까지 소화하느라 김도영이 공·수에서 부진했고, 그 사이 팀은 4연패까지 기록했다.

비로 취소됐던 두산과의 월요일 경기가 전개된 18일 김중국 감독은 결국 라인업에 변화를 줬다. 경험 많은 최원준에게 톱타자를 맡겼고 그 뒤에 김도영을 배치했다. 또 올 시즌 김도영이 맡아왔던 3루수로 수비 위치를 바꿨다. 익숙한 원래 자리로 김도영이 돌아간 셈이다.

김중국 감독은 “안타보다는 출루를 해야 하는 데 타격 매커니즘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구 전 이후 상태로 타격을 하는 게 보인다. 간결하게



18일 두산과의 홈경기에 앞서 KIA 최형우가 배팅볼 투수로 나서 후배들의 타격 훈련을 돕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하체를 주로 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도영이가 꾸준히 3루를 보는 게 나와 것 같다. 가장 준비를 많이 한 포지션이다”며 “김규성이 유격수 경험이 많으니 스타팅으로 한 후에 뒤에 대기하는 선수들로 교체해가면서 할 생각이다. 박찬호가 후반에는 수비되니까 상황 맞춰서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말 허술한 수비로 두산에 승기를 내줬던 상황을 고려한 수비 강화다.

팀의 최고참 최형우도 연패에 빠진 팀 분위기 전환과 김도영 ‘감잡기’에 특급 도우미로 나섰다. 최형우는 18일 두산과의 홈경기에 앞서 배팅볼 투수를 자처했다.

최형우는 김도영, 김규성, 이창진 등의 타격 시간에 직접 공을 던져주면서 후배들을 응원하고 격려

했다.

최형우는 “그냥 몸풀려고 했다. 별 의미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후배들에게는 특별한 타격 훈련이 됐다.

김도영은 “형우 선배님이 감잡게 해주신다고 공을 던져주셨다”며 “노림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신다.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아직은 그런 게 어렵다.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는다. 이겨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직은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한 2년 차 선수. 하지만 김도영은 팀 상황상 반드시 역할을 해줘야 하는 핵심 선수이기도 하다. 사령탑과 베테랑의 ‘김도영 살리기’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수비수 유지하 ‘멀티골’

K리그2 경남FC에 3-2 승리

전남드래곤즈가 수적 열세를 딛고 4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수비수’ 유지하가 멀티골을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전남은 지난 1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하나원큐 K리그2 3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뒀다. 아스나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지만, 유지하가 K리그 데뷔골에 이어 멀티골까지 장식하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유지하는 전반 26분 머리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반 25분 지상옥의 슈팅이 경남 골키퍼 고동민의 선방에 막혔지만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유지하가 골세터머리를 펼쳤다.

발디비아가 키커로 나서 왼쪽에서 공을 올렸고 문전에 있던 유지하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유지하의 K리그 첫 골.

2018년 포항스틸러스에 입단한 유지하는 정규 리그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고, 지난해 전남 유니폼을 입고 K리그2에서 첫 경기를 소화했다. 올 시즌 14번째 경기에 나선 유지하는 K리그2 15경기 만에 데뷔골을 장식했다.

전반 36분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남 이광진의 패스를 받은 모재현이 전남 수비진 사이에서 오른쪽 슈팅을 날리며 1-1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시작 4분 만에 전남에 악재가 발생했다. 아스나위가 전반전에 이어 또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했다.

위기 상황에서 유지하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후반 22분 프리킥 상황에서 발디비아가 공을 올렸고 유지하가 오른쪽으로 공을 터치해 멀티골을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지하

후반 50분에는 전남 이용재가 오른쪽에서 공을 몰고 박스까지 진입한 뒤 골키퍼를 마주한 채 슈팅을 날리며 3-1을 만들었다.

경남 모재현이 후반 52분 멀티골을 기록했지만 전남이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막으면서 승리를 챙겼다.

최근 3경기에서 1득점으로 1무 2패에 그쳤던 전남은 유지하의 활약으로 4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동강대 야구부 6년간 프로선수 6명 배출

투수 박지호 두산 입단

“생각보다 높은 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아 더 기쁩니다. 실력과 인성 모두 인정받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좌완 박지호(투수·2년)가 동강대 6번째 프로 선수가 됐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2024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두산의 5라운드 선수로 호명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이뤘다.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박준표를 시작으로 최근 6년 동안 동강대 선수 6명이 SSG 랜더스, 두산 베어스 등에 부름을 받았다. 특히 두산과의 인연이



박지호

등 안정적인 투구에 힘쓰고 있다”며 “국내 투수 중 ‘물 모델’은 NC 구창모 선수다. 같은 좌완인데 볼 구위나 제구력이 좋아 받고 싶다. 키움 이정후 선

수와는 꼭 대결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앞서 두산 유니폼을 입은 동강대 선배 박민준과의 ‘배터리 재회’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박지호는 “투수가 공을 편하게 던질 수 있게 리드하는 정말 좋은 포수다. 프로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이 자랑스럽다. 빠른 시일 내에 1군에서 좋은 모습으로 같이 뛰고 싶다”며 “홍현우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투구 밸런스 등 부족한 점을 잘 다듬어주셨다. 또 많은 기회를 줘 프로 입단의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동강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뒤통수를 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체고, 초·중·고 학년별육상 금 5·은 1·동 2

“전국체전 광주의 저력 보이겠다”

광주체육고 육상선수단이 제4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육상경기대회에서 총 8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체육고 육상선수단은 14-18일 충북 보은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정소운이 여고3학년부 100m에서 13초53으로 남재은(충현고·13초90)과 장지은(소래고·13초91)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소운은 여고2학년부 200m에선 28초68로 윤주희(문산수익고·26초90)와 이효은(강원체고·27초80)에 이어 동메달을 추가했다.

나현주는 남고2학년부 400m에서 49초80을 기록, 안예강(대전체고·50초32)과 김민혁(용인고·

50초32)를 따돌리고 금빛 질주를 펼쳤다.

강철현은 남고3학년부 100m에서 10초79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장근오는 남고1학년부 400m에서 52초11로 결승선을 통과, 50초65의 이예찬(동인천고)에 이어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찬송은 여고3학년부 100m에서 12초80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정은은 여고3학년부 높이뛰기에서 1m50으로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멀리뛰기에서도 4m60 기록으로 금메달을 추가했다.

김재나 광주체고 육상 감독은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했는데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줘 만족한다”며 “남은 기간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전국체전에서 광주 육상의 저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체육고 정소운(가운데)이 제4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육상경기대회여고2학년부 1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체육고 제공>

이강인, 20일 UCL 경기서 복귀전…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앞두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20일 오전 4시(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2023-2024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F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홈 경기를 치른다.

이 강이는 올해 소속팀의 UCL 첫 경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강인에게는 약 한 달 만에 부상을 털어내고 치르는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즌까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던 이강인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로 이적했으나 8월 말

왼쪽 다리 부상으로 이후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이강인이 이날 도르트문트 전에 펼쳐지는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선택에 달렸으나 PSG가 대한축구협회와 이강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시기를 도르트문트와 경기 이후로 합의했기 때문에 출전이 유력하다.

이강인이 이날 경기에 나올 경우 팀의 간판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프랑스)와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강인은 이 경기를 마지막 중국으로 이동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며 24일 바레인고 조별리그 3차전부터 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